

겐요샤[玄洋社]

근대 일본 국가주의 단체의 시발

1881년 ~ 미상



1 개요

겐요샤(玄洋社)는 1881년 옛 후쿠오카번(福岡藩)의 무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정한론을 계승하고 국회개설 청원운동 등에 관여하였다. 1880년대 후반에는 국권(國權) 중시의 경향을 분명히 하며 조약 개정 반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부의 군비 증강 정책에 호응하였다. 이후 1890년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아시아주의를 명분으로 하는 국가주의 단체로서 활동하며, 흑룡회(黑龍會)와 낭인회(浪人會) 등을 결성하였다. 일본의 초기 우익 단체로 평가된다.

2 정부 비판과 대외 강경론

겐요샤의 성립 배경에는 정치 결사인 고요샤(向陽社)가 있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몰락한 옛 후쿠오카번의 무사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정한론(征韓論)을 계승하였다. 이들은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이른바 불평사족(不平士族)의 무력 봉기에 동조하는 한편,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가 고치(高知)를 기반으로 설립한 정치단체인 릿시샤(立志社)를 따라 민권(民權)의 신장을 주

장하였다. 그런데 1876년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萩)에서 일어난 반란에 참가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이듬해 세이난 전쟁(西南戰爭)에 대응한 거병도 진압되었다. 이에 1879년 히라오카 고타로(平岡浩太郎), 도야마 미쓰루(頭山滿), 하코다 로쿠스케(箱田六輔) 등이 중심이 되어 고요사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사원(社員)은 61명이었다. 그들은 옛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유사전제(有司專制)라고 비판하며, 애국사(愛國社) 국회기성동맹(國會期成同盟)의 일원으로 국회개설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881년 고요사는 겐요사로 개칭하였다. 그해 일본 정부가 9년 뒤 국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유민권 운동의 세력은 정당정치에 대응해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타가키가 자유당(自由黨)을 창설하고, 규슈(九州)에서도 1882년 규슈개진당(九州改進黨)이 발족되었다. 하지만 겐요사는 정당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1884년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청 군대가 개입해 진압되자, 이듬해 도야마가 일본 고베(神戸)에서 김옥균을 만나 상당한 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겐요사는 원래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황실을 공경하고 국가를 소중히 하며 인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사칙(社則)으로 하였다. 국권(國權)의 확립에 기초해 민권을 신장하려 한 것이다. 무엇보다 1886년 청 북양함대가 나카사키(長崎)로 입항해 폭행 사건을 일으켜, 청·일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에 대해 일본 사회가 청에 대해 위협과 함께 적개심을 느꼈고, 겐요사는 국욕(國辱)이라 느끼며 '민권 신장론을 버리고 국권주의'를 강조하게 되었다. 국민의 권리와 생활 향상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권리를 확장하고 국력을 충실히 하며 군국주의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 것이다.

탄광으로 재정 기반을 마련한 것과도 연관해, 겐요사는 대륙 진출을 강령에 내걸고 국권을 강조하였다. 1887년 도야마는 신문 『복릉신보(福陵新報)』를 발간하고 조약개정 반대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조약 개정으로, 정부는 1850~1860년대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서구 제국에 대해 상당히 타협적인 것이었고, 그로 인해 자유민권 운동에 이어 조약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정부 비판의 움직임이 거세어졌다. 특히 정부가 일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영사재판권을 철폐하는 대신, 외국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즉 사법관에 외국인을 임용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이 알려지자,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쟁과 테러 등이 이어졌다.

마침내 1889년 10월 총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가 조약 개정 방침을 밝히자, 겐요사 사원인 구루시마 쓰네키(來島恒喜)가 외무성 앞에서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오쿠마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구루시마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였다. 그의 자살로 배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테러는 국권을 중시하며 대외 강경과 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겐요사와 긴밀히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구로다가 총리대신에서 물러나고, 조약 개정의 교섭도 백지화하였다.

3 아시아주의 명분의 국가주의 단체

1890년 일본에서 의회가 개설되고, 정부가 제출한 군비 확대의 예산안을 부결하였다. 의회는 민력(民力)의 휴양을 주장하며 군사 예산을 삭감하고 청과의 전쟁을 주저하였다. 이에 정부는 1892년 중의원(衆議院)을 해산하고 선거에 간섭하였다. 민당(民黨) 지지자에 대해 매수와 협박을 공공연히 하였고 때로는 경찰까지 동원하였다. 그때 겐요샤는 이전과 달리, 군사 예산을 증가하려는 정부에 호응하며 정부의 선거 간섭에 협력하였다.

특히 겐요샤는 일본군과 밀접히 관련되었다. 먼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계획과 달리 조선 정부에서 친러파가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정치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궁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친일파 정부를 세우기로 하고, 조선 주재 공사를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로 교체하였다. 미우라는 조선 주재 일본군 및 외무성 관리와 낭인(浪人)을 지휘해 조선의 왕비(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당시 미우라는 일본 정부가 직접 시해에 가담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겐요샤 소속의 낭인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비 시해에 가담한 48명은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되지만, 2년간 복역 후 전원 석방되었다.

다음으로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군이 마적(馬賊)을 회유하자, 이에 대응해 일본군 역시 마적을 총괄할 인물이 필요해졌고, 예비역 소좌로 소집된 하나다 나카노스케(花田仲之助)를 참모본부로 복귀시켜 만주로 파견하였다. 하나다는 일찍이 승려로 위장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복하며 포교를 명분으로 시베리아와 만주 및 몽골 지역을 정찰한 인물이었다. 그는 겐요샤의 낭인 이른바 대륙낭인(大陸浪人) 14명과 대륙낭인으로 위장한 참모본부 정보장교들을 핵심으로, 만주 마적을 모아 만주의군(滿洲義軍)을 편성하였다. 그 병력이 최대 3천 명에 이르렀다. 만주의군은 러시아군에 대한 후방 교란, 병참 파괴 등을 임무로 하는 특별 부대로서 각지에서 철도를 파괴하고 물자를 약탈하며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 참고로 후쿠오카 시에 위치한 소후쿠지(崇福寺) 경내 겐요샤 묘지에 만주의군의사지비(滿洲義軍義士之碑)가 있다.

겐요샤는 대외 강경과 군비 증강 등을 주장하는 국권주의 단체로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깊이 연관되었다. 주목할 것은 겐요샤가 대외적으로 서구 제국의 지배를 받는 아시아 각국의 정치인을 지원하며 아시아주의를 내건 점이다. 대외적으로 서구 열강의 침탈에 대응해 아시아 제국의 연대를 강조하지만, 실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가 변화하는 것에 연동해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졌다. 서구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자립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 예로 1901년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 등이 흑룡회를 결성하고 겐요샤의 국외 공작을 담당했다. 우치다는 겐요샤를 이끌었던 숙부 히라오카 고타로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일본이 조선과 중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현실적으로 러시아를 경계하며 중국과 협력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손문(孫文)의 혁명 운동을 원조하고, 흑룡회를 결성해 러시아의 사정을 파악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주장하였다. 1908년 도야마, 미우라 등이 참여해 결성한 낭인회 역시 쑨원(孫文)과 신해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낭인을 보냈다. 한편 우치다는 1906년 통감부 촉탁으로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수행하였다. 일진회(一進會) 회장 이용구(李容九)와 합방 운동을 약속하고 일진회의 고문이 되었으며, 1909년 일진회 명의로 '한일합방건의서(韓日合邦建議書)'를 대한제국 순종(純宗) 황제에게 제출하였다.

겐요샤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주의 단체로 변모하며, 아시아주의를 명분으로 흑룡회와 낭인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전개했다. 패전 이후 1946년 연합군 총사령부(GHQ)가 겐요샤를 위험단체로 지목해 강제 해산했다.